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다

경남도내 유일 고등공민학교 '충무고등공민학교'

경남도내에는 1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있다.

공민학교는 1946년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문맹퇴치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을 위해 공민학교설치요 령에 따라 설치됐고, 이후 1948년 중학교 과정의 학력 미인정 교육기관인 고등공민학교가 만들어졌다.

공민학교는 5~60년대 야간학교, 재건학교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초등교육의 보편화 정책 및 중학교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는 1개의 공민학교, 4개의 고등공민학교가 남아있 으며, 올해엔 경남의 공립 충무고등공민 학교 1교를 제외한 모든 공민·고등공민학 교가 폐지될 계획이다.

충무고등공민학교는 1950년에 발족하

여 1959년에 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1960년부터 지금까지 현 교사인 통영 시 문화동 238번지에서 그 터를 닦아오고

충무고등공민학교는 그동안 학생수 감소, 교사 부족, 사회적인 무관심, 관리 인력 부재 등으로 폐교될 상황까지 갔으나, 학령초과 성인들이 마땅히 배울 곳이 없는 지역적 특수성과 이 학교 출신 인근학교 교사의 눈물어린 헌신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해 왔다.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하봉미 교감 (53세)을 비롯해 총 12명 정도로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현직 교사 출신을 비롯해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하며 특히, 하봉미 교감은 이 학교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 직접 운영비를 마련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으로 올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8년 동



안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

또, 이 학교 출신의 통영고등학교 김광 득(49)교사는 18년간 봉사활동을 해 온 공로로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 았다.

권정호 교육감은 충무고등공민학교의 고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평생교 육 차원의 일회성 지원 방식을 지난 2009 년도에 1천30만원으로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 예산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올해에는 인건비, 수당, 운영비 등 연 4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유 일의 공립고등공민학교로서의 지원을 아 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학교 및 학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 근무 수당 및 겸임교사 수당을 신설하여 그동 안 무보수로 봉사한 교직원들에게 실비를 제공토록 하는 등 힘쓰고 있다.

한편, 충무고등공민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고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윤현 동창회장(62세)은 "그 동안 서럽고 어렵게 학교를 다녔지만 경남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충무고등공민학교가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학교가 될 수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충남서산교육청, 급식품 구매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류 광호)이 친환경 및 품질인증 식재 료 사용 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급식품 구매계약의 공 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에 적극 나선다.

서산교육청은 13일 안전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별로 2~5개교를 묶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 식재료는 물론 친환경 식재료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절 감된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각종 특식 등을 자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된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 다.

이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 거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 단위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재료의 물량이 적어 납품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학교인 경우 근처 지역 학 교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하게 되 면 납품업체들은 물량이 많아 좋 고, 학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재 료를 안정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 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 동안 각 학교와 업체 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계약업무를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주관학교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고 대외적인 공정성 및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는 지난 2005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 며, 이후 전국으로 파급되어 지속 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는 추세 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126억원…서산, 교육지원 크게 쏜다

서산시청과 서산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서산시를 명실 공히 교육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 육기관 및 학생 관련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류 광호)은 지난 13일 2010년도 서산 시(시장 유상곤)의 교육기관 및 학생 관련 지원 사업비로 국비 13 억5천, 도비 19억6천, 시비 93억 3천으로 총 126억4,400만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지원 시업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체 지원금 중서산시의 지원금 차지 비율이 74%나 되는 것으로, 이는 교육지원 경비를 국가나 충남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그만큼 줄고 서산시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지원되는 교육기관 및 학생 관련 지원 사업은 서산시청 총 15개 실과의 39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이 중 21개 사업(사업비 32억8,500만, 차지비율 26%)이 순전히 서산시 자체예산으로 집행되며, 나머지 사업중 도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학

기 중 휴일 아동 급식'6억7,500 만원의 시업이 유일하다. 이는, 충남도나 국가 지원사업 외에 서 산시가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이번 교육지원시업 내역 중 주목할 만한 것은 ▲ 서산 전체 교육경비 지원 33억3,400만 ▲ 아동급식비 및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25억2,700만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9,500만 ▲ 체육인재육성사업 3억5000만원의 사업으로서산시와 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교육지원사업에 재원이 고루 배분될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교육기관 및 학생 관련 지원 사업 협력을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 자는 "해가 갈수록 서산시의 교육 지원 사업 규모가 종류와 규모면에서 커지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다"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에게 교육지원 사업비혜택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예산집행 및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진 교육, 당분간 큰 변화없을듯

미산·창원·진해 통합 앞두고 교육계 고심

경남 창원·마산·진해(이하 창·마·진) 통합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

이에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조만간 테스크포스 (Task Force)팀을 구성, 새로 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 작업 경 과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분석 과 검토를 거쳐,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세부계획을 발 표하겠다고 전했다.

교원인사 관련

경남교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창·마·진 지역의 교원 인 시문제는 행정적 선행 작업이 충 분히 이루어 진 후에 결정될 사항 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 체제를 유 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인사권을 갖는 고등

학교 교사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초·중학교 교사의 경우도 당분간 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사전보는 명령권자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만약 지역교 육청이 2개 이상 존립된다면 행정 기구의 개편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인사급지 조정과 더불어 서서히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해당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안을 결정할 방 침이다.

학구조정 관련

참예하게 대두 될 창·마·진 지역의 학구 조정은 행정기구의 개편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교육청도 행정기구 개편 이 후에야 여러 의견을 수렴,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마·진 지역의 고교평준화 관련

현재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제외하면 37개 의 일반계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 다.

이 중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창 원과 마산의 경우는 평준화지역, 진해의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창·마·진 통합 후 고교평준화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 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는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 로 조만간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구 개편 작업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해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여부를 각계의 사람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교과부와 협의 할 예 정"이라고 전했다.

충북도, 다양한 운동장 조성 학교 연내 50개교로 확대

충북도내 학교 중 축구장, 우레탄 트랙, 인조 잔디 등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학교가 50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다양한 학교 운동장'이 시설되는 학교는 도교육청 자체선정 7개교,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4개교, 문화관광부와 자치단체 공동 추진 선정 5개교 등 16개교로,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학교는 모두 50개교로 늘게 된다.

대상 학교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최소 3억 6천만원에서 최대 8억 5천여만원 등 총 105억원 정도가 투입돼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기타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시업은 학교 운동장을 선진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 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업으로 2005년도 부터 추진되어 왔다.

인천시교육청, 중・고 교육과정담당자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3~15일 2일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라마다 호텔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2011년도 교육과정편성표 작성및 교원수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구숖을 개최해다

이번 워크숍은 교과부 송낙현, 강익수 교육연구사의 2009개정교 육과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고, 인천시교육청 최근환 장학사가 참 여해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원수급방안을 자세히 설명했 다. 2011년부터 시행될 2009 개정 교육 과정은 학기 및 학년별 집중 이수제 실시, 학기당 8과목 개설 등 앞으로 변화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을 개 최함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육과 정담당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 었다.

.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